

환경보전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이 글은 환경보전협력학교인 서울신북국민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에 관한 글이다.

신북국민학교에서는 구체적 활동으로 「개인쓰레기통 활용」 「휴지모으기」 「오염현장견학」 「애향단 활동」 「가정통신문에 의한 교육 및 지역주민제도」 「어머니회원들의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현장견학」 「환경보전에 관한 강연회개최」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 두편의 글은 오염현장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의 현장견학기이다.

〈편집자註〉

홍제천의 생태계

김 일

〈서울 신북국교 6년〉

우리 환경과학반은 홍제천의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 홍제천 상류(세검정계곡)으로 갔다.

세검정계곡(홍제천 상류)에는 마침 일요일이라 많은 등산객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계곡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속에는 대체로 송사리, 개구리, 올챙이 등이 살고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중류로 가는 도중이었다. 산을 벗어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오니 물은 벌써 오염되기 시작했다. 또계곡에서는 그렇게 맑고 깨끗했는데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하수구물이 바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세검정 정자 옆으로 흐르는 물은 옛날에는 깨끗한 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염이 되어 거품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거품은 가정에서 쓰는 하이타이나 풍풍 등의 합성세제들이 물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무서웠다! 이 물이 흘러 한강으로 들어가는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게 아닐까?

우리는 다시 홍제천 중류인 홍제동과 연희동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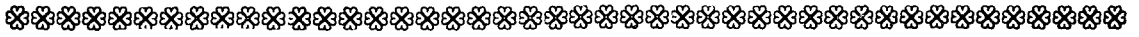
중류의 물은 물의 양이 훨씬 많았고 물 색깔도 검은색에 가까웠다. 냄새가 많이 났다.

물속을 들여다 보니 물속에는 음식찌꺼기 등 별의별 더러운 것이 흘러가고 있었다.

물속에는 실지렁이 같은 벌레가 살고 있었다. 징그러웠다. 물 근처에 가기조차 무서웠고, 도저히 생물이 살것 같지 않다. 물을 만져보기조차 싫다. 집이 많은 동네근처의 물일수록,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의 물일수록 더 더러웠다.

깨끗이 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 참으로 큰일이다.

또 걸었다. 이제는 모두 지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상류의 계곡에서는 송사리도 잡고 해서 신바람이 났으나 내려올수록 냄새와 더러운물 때문에 기분만 참쳐서 우울한 기분이니 몸도 더욱 지치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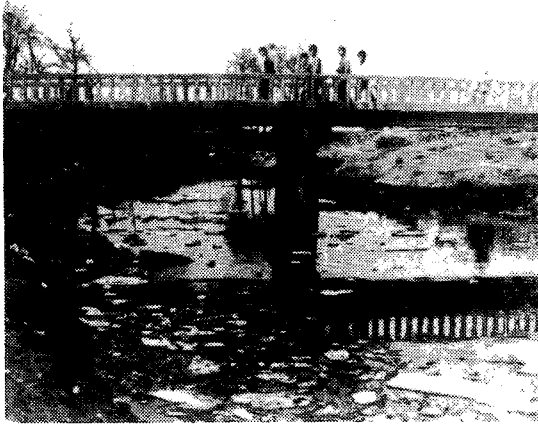


물은 더욱 더러웠고 강바닥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더 많이 있었다. ‘생물이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은 아예 해볼 필요도 없었다.

한강이 가까운 성산동 「중동국민학교」앞에까지 왔다. 그곳에서 어떤 게시판을 보았다.

그 게시판은 홍제천의 물줄기를 나타낸 지도로써 불광천과 합쳐지는 모습과 한강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잘 알 수 있게 그려져 있었다.

오늘의 탐사활동으로 많이도 걸었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걸었으리라고는 느끼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머!’ ‘야!’ 하고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고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마디씩 하며



힘든 일 했다는 자랑스러운 얼굴들이었고 다시 생기를 찾는 듯 했다.

강의 한쪽 옆으로는 「분류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 공사를 가정의 하수를 따로 모아 한강 입구에서 하수처리를 하여 한강에 내려 보낸다고 한다. ;

돈이 엄청나게 들것이다.

누구의 돈인가?

우리가 더럽혀 놓고 우리가 돈을 내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의 탐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계곡에서는 그렇게 맑던 물이 중류, 하류에서는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 그것

을 우리들이 더럽혔으니 우리의 손으로 막아야 하고, 상류의 깨끗한 물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신북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교가 환경보전교육시범학교입니다만 시범학교라서 해야 한다기 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수질오염에 대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홍제천의 물을 깨끗이 보전하는데는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은 물론 우리집 가족 모두가 나아가 우리 동네사람 또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가정하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합성세제」는 알맞게 쓰고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을 깨끗이 쓰고, 또 아껴 써야 하겠습니다. *

폐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장 경 희

(신북국교 1년 함주연양 어머니)

하늘은 뿌옇다. 상큼한 파란하늘이 요즘은 보기 힘들다. 우리 어머니교실회원들은 버스에 분승해서 약간의 호기심과 바쁜 나날에 환경에 대한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이 보내던 터라 잠시 숙연해 졌다.

첫번째 목적지인 롯데제과에 당도하여 원료에서 과자, 사탕, 초코렛, 아이스크림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에 따른 폐수처리과정을 둘러 보았다.

작업환경, 위생면, 폐수처리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설과 노력이 진작 있어야 했는데... 버스를 타



고 계속 달려 구의 수원지에 도착했다.

한강물을 침전 소독처리해서 우리집 수도까지 오는데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비용과 시설과 인간의 노력으로 수돗물 한방울이 되는가 싶어 아연해지고 스스로 느낌이 커진다.

이렇게 힘든 과정과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한 물 한방울이 된다고 생각하니 인간의 힘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거기엔 한계가 있음을 직감했다. 생수가 좋다는 시 직원의 설명을 들었지만 솔직히 내키진 않았다. 먹는 물과 버리는 더러운 물의 관계, 거품이 떠있는 침전지의 모습 자꾸만 뇌리에 스쳐온다.

우리는 다시 「중량천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다. 보기만 해도 흉칙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물의 용솟음을 보며 ‘어머!’ 이외에는 누구도 할말을 못 찾는다. 한달 몇십억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하수를 정화시켜야 하는 시설규모, 과정등은 차라리 인간의 생존 투쟁 그 자체였다. 독버섯처럼, 마치 원자핵 폭탄의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른 합성세제의 거품들, 박테리아(미생물)에 분해되지 않은 하얀 모습! 가정에서 손쉽게 세탁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세제를 탁! 부어 넣던 일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그 물들이 다시 내 입에 들어온다. 인과응보랄까 아무튼 돌아오는 길에 차창을 통해 보이는 많기도 많은 집, 아파트며 산꼭대기의 탁지탁지 붙은 집들 바글거리는 거리의 못 사람들- 집에 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식사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이 반찬 찌꺼기들, 썩지않은 비닐, 야채찌꺼기 깡통 등... 아무 생각없이 한모금을 위해 한 바가지를 떠서 버리는 물,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기업인들, 내집 내 식구만 생각하는 주부들- 먹는것, 쓰는것, 버리는것, 모두 합리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강으로 갈까나” 하는 노래가 영원히 불리워질 수 있는 푸르고 맑은 조국 강산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들 부터 각성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서 우리 가정에서 부터 출발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러한 현장견학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서울 시청 환경과와 서울 신북국민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학교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 *

“환경보전협회보는 환경인 여러분의 글로 이루어집니다.”

環境保全協會報는 環境人 여러분이 꾸미는 글모음입니다.

각 회원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연구개발현황, 공지사항 그리고

재언이나 시·수필 등을 수시로 본 협회 홍보부로 투고바랍니다. 더불어 환경기사, 본 협회 명예회원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의 글이면 어느 글이나 환영합니다. 간혹, 지면관계로 당해호에 실리지 못한다면 차호에 꼭 게재하여 드리오니 環境人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지불하며 보내신 원고는 반환치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홍보부